

이기웅의 영혼도서관



광주, 지혜의 도시

광주는 참으로 풍요로운 고장이다. 이곳엔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다. 오묘한 산과 강, 그리고 바다에서 빚어내는 풍부한 물산(物産)이 오랜 인간의 역사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곳만의 독특한 문화의 인자(因子)를 쌓아 왔다. 아마 그래서 ‘빛고을’이라 일컬어져 왔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광주는 500km²의 광주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이 아니다. 오랜 인간의 역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뤄 온 취락(聚落), 곧 함께 모여 삶을 가꾸 온 광주권을 가리키는 것이니, 경계는 모호하나 더 넓게 인근을 아우르는 광주의 문화권역(文化區域)을 이르는 지역개념이다.

우리의 지리개념이 언제부터가 행정구역으로 재단되는 기세에 놀려 인문적인 권역의 인식이 모호해졌다. 이런 무모한 지역 가르기가 인문지리학을 유지한 모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모든 일이 행정구역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우리 삶이 부지불식간에 행정편의 아래 획일돼 가고 있어 안타깝다.

오늘 나는 광주의 참얼굴, 그리고 그 역사를 더듬어 어루만지면서 다시 한번 깊디깊은 생각을 잠겨 본다. 나는 언제부터가 광주를 지혜(智惠)의 땅이라 부르곤 해 왔다.

1964년 육군 소위로 임관된 나는 이곳에 자리하던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산하의 보병학교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면서 광주와 첫 인연을 맺는다.

그 시절 우리는 무척이나 가난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랐던 내가 우리나라의 가난이 이토록 심했었던가 하면서, 그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놀라운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던 무렵이었다. 고된 훈련 속에서,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접했던 광주의 주변과 그 도시 중심거리와 사람들의 풍경은 나의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다.

나라가 윤희 가난한 얼굴로 찌들어 있는 가운데, 이곳 광주만이 유독히 지혜로운 얼굴과 다사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느낌으로 다가왔던 도시였기에 말이다.

우선 사람들이 그랬다. 만나는 사람마다 밝고, 아름다웠다. 광주 탈세인 남도 사투리에서 인간미와 예술적 감흥이 짙게 묻어났다. 좋은 상대라 느껴지면 그 상대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 뭔가를 우려내어 가져가려는, 광주 사람들이라면 내내 좋지 않는, 뭔가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곤 했다. 놀랍게도, 그 젊은 날의 나의 생각이 지금도 똑같이 느껴지는 어인 일일까. 광주는 지금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내 앞에 있다.

그 후 지금까지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60년대에 나를 향해 발하던 그 지혜로운 빛들이 어디서 발원(發源)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크고 작은 빛들이 오늘도 변치 않고, 도처에서 발사하고 있음에 새삼 놀란다. 우선 문화재들이다. 모두가 알 만한 지정문화재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이르고자 하는 문화재란 문화재정책이 아직 미치지 아니한, 언뜻 보면 그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문화재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광주의 곳곳에서 내 눈에 잡힌다. 규모나 연륜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몇 세대를 거쳐 광주인들의 입김이 서린 존재들을 발견하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문화재이구나, 그러나 문화재로서 지정받지는 않았으며 오늘의 우리 삶에 자연스레 무르익어 있어 왔구나 하고 무릎을 친다.

하지만 이들을 우리 삶의 문화재로서 유존시켜야 하는데,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느라니고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광주를 향한 내 나

름의 발견은, 그것은 유형의 실체들이 무형의 존재들에 교묘히 연장돼 있어, 무형의 문화인자(文化因子)들로 광주 사람들의 마음과 손끝과 형태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지혜로운 광주, 보배로운 광주를 지켜나 가려면,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더욱 아름답게 가꾸려면, 간단하고 쉬운 이 깨달음과 발견에 주목하고 귀기울여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 있듯이, 광주 안에서는 광주의 진실(眞實)과 진가(眞價)를 바로 보기가 힘들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고 소리쳐 외친다고 해서 광주의 보배로움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생활 속에 무르익어 있는 광주다운 유형·무형의 작은 문화재들을 우리 삶, 우리 땅 속에 자연스레 온존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요소들을 무모하게 가져다가 이곳에 첨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선 광주다운 요소들이 초석(礎石)을 이루고, 그런 다음 그 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 자명(自明)한 이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

(열화당 대표)

특별기고



팅안진 주광주 중국총영사

중한수교 21주년, 영원한 동반자로

데다가 중한외교 업무에 처음 접한 관계로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때였다. 하지만 그 날 리셉션의 뜨거운 열정과 우호감정 그리고 깊이 있는 교류는 나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중한양국 간 “나에겐 네가 있고, 너에겐 내가 있다”라는 말처럼 친밀한 관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민들의 중국에 대한 돈독한 정을 느꼈다.

중한수교 이래 양국관계는 시종일관 ‘고속도로’에서 전진하고 있고 항상 상승기에 있다. 이 같은 양국의 밀접한 관계는 직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작년 양국 무역액은 2563억 달러라는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는 수교 초기보다 50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의 대 중국 누적 투자액은 약 530억 달러이고 5만여 개의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년 양국 인적왕래는 720만 명을 넘었고, 일일평균은 약 2만 명이다. 매주 830여 편의 항공기가 양측을 오가고 있고, 양국은 각각 약 6만 명의 유학생이 상대방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짧은 21년 동안 중한 관계발전의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 그리고 깊은 정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중한관계 발전은 양국 경제사회발전을 힘치게 추진시켰고 양국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세계 평화적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공

헌을 세웠다. 올해는 중한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20년이 시작되는 해이고 양국 정부가 교체된 해로, 양국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형세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출발하는 해이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양국 지도자들은 장기간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관계발전의 청사진을 전면적으로 마련했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치안보, 경제사회, 민간교류 등 3가지 중점협력 분야와 5가지 구체적 행동계획을 확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이 좋은 시작이 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한국의 꿈’은 양국의 강물이 황해에서 서로 만나는 것과 같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결국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한국 호남지역은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 예로부터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광주·전남의 주자(朱子廟)와 전북의 새만금은 모두 중한우호교류 역사의 증거이다. 호남지역의 많은 분들은 중한 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유학을 하기도 한다.

어느 분은 중국을 백번 이상 방문하기도 하였다. 빈번한 왕래와 우호협력을 통해 당

은 분들은 명실상부한 ‘중국통’(中國通)이 되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중국통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소통하고 우리의 협력을 소통함으로써 호남지역과 중국 간 관계를 더욱 가까워지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욱 많은 호남지역 인사들이 중한 양국이 손잡고 전진하는 대열에 합류하여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함께 향유하기를 희망한다.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전직원은 한결같이 중한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양측 교류협력이 한 층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에는 ‘경기에 의한 사이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식사에 의한 사이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권력에 의한 사이는 1년을 넘기지 못한다. 도의에 의한 사이만이 평생 갈 수 있다’는 옛말이 있다.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상통하며 인문적으로는 매우 친밀하고 무신불립(無信不立·신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이라는 가치이념을 숭배한다. 지난 20년간 다진 견고한 기초로 인하여 중한관계는 도의에 의한 친구가 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향해 양국은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끊임없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신뢰시켜 상호신뢰 동반자, 발전 동반자, 우호 동반자, 평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종교칼럼



김재영 광주 성안교회 목사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

따르면, 국내 활동 자원봉사자는 153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10대가 70만409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가 25만 5346명으로 뒤를 이었다. 10대, 20대의 기형적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는 봉사자 이미 스펙 쌓기로 변질되었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봉사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30대, 40대의 자원봉사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봉사의 질 또한 매우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자원봉사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결국 봉사는 특별한 연령층에 국한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요, 삶 자체가 봉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변질된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루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부분은 상실되어가고 오히려 선행이나 경험, 자기 자랑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 때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 잠깐 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평생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재능을 기부하려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점들은 개인적인 오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기관마저도 근본적인 자원봉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려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다반사다. 오히려 값싼 노동력으로 오인해 착취하거나 봉사가 아닌 허드렛일을 써서 고쳐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원봉사는 3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첫째는 자원봉사를 하고 인증 사전을 찍으며 성급에 치중하는 그릇된 행태이다. 두 번째는 어떤 유명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해외에 나가서 봉사했다든지 남들에게 허세부리며 자랑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의 과정과 의미인데 말이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주의이다. 자원봉사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고서는 하기 힘들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구나’라고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자원봉사를 할 때 측은지심으로 봉사를 해서선 안 된다. 상대방이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다. 특히 스킨십이 최고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원봉사는 공평하게 해야 한다. 힘센곳은 사람에게는 봉사하지 않고 귀여운 아이만 잘해주면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친구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과 허물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뢰’이다. 다가가고 싶으면 먼저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원봉사는 어느 특정한 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사회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 몸이 배인 사랑의 실천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봉사자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권력, 돈, 명예, 지식 등이 모든 것이 이루어 위한 자기의 재능으로 인식된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한빛원전 또 불시 정지, 주민은 불안하다

한빛원전(구 영광원전) 6호기가 21일 갑작스런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울 들어 원전이 불시에 정지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시간당 1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한빛원전이 멈춰서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원전의 잦은 고장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2시44분께 한빛 6호기 원자로에 냉각수 펌프 계통의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했다”며 “현재로서는 재가동 시점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빛 6호기의 돌발 정지에 따라 이날 오후 예비전력이 400만kw 후반대에서 순식간에 300만kw대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 경보 2단계인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울 여름 들어 3번째라고 한다.

22일에도 예비전력이 45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수급 경보 1단계인 ‘준비’가 내려졌다.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재가동까지는 적어도 1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전사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빛 6호기는 위조부품 납품으로 지난해 11월 발전을 중지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으나 8개월 만에 또다시 멈춰서 주민들의 ‘원전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불시 정지사고는 연평균 4~5건이나 되고,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작동부품 사용, 부주의 등이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84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과 2011년 일본 후쿠지마 사고의 참상에서 보듯 원전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대재앙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전 전면 결전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인 블랙아웃(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비상매뉴얼을 재점검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선대 이사회 비상식적 파행 빨리 끝내라

최근 지역사회의 난제 가운데 하나로 파행을 거듭해 온 조선대 이사회 구성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조선대 현직 총장과 총동창회장을 당면직 이사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선대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현재 공석인 이사 1명을 선임키로 하고, 대상을 물색 중이라고 한다. 이사회는 연초부터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허비퀴만 돌렸다. 이에 따라 학교 사정에 밝고 대학과 지역사회에 연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총장이나 총동창회장을 새 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사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사회에의 마찰음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다. 이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방 이사로 3명을 선임하고, 기존 이사 8명 가운데 2명을 뺀 6명을 선임(연임)해 차기 이사회 9명을 확정지으려 했다. 그러나 올해 초 임기가 끝난 8명의 이

사 중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다고 버티는 바람에 파열음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탄을 받아 오던 이사회는 결국 권석 이사 1명을 우선 선임키로 하고, 26일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호남 최대 사학이자 민립대학으로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대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결코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전국의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마당에 ‘감투싸움’이나 벌이고 있는 이사들의 처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총장이나 총동창회장을 새 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사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사회에의 마찰음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다. 이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방 이사로 3명을 선임하고, 기존 이사 8명 가운데 2명을 뺀 6명을 선임(연임)해 차기 이사회 9명을 확정지으려 했다. 그러나 올해 초 임기가 끝난 8명의 이

無等鼓

두바이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828m)다. 마천루(摩天樓)가 즐비한 두바이 중심가에서도 유난히 눈에 띌 정도로 높다. 멀리서는 한 눈에 들어오지만 점차 칼리파에 다가가면 올려다보기도 힘들고, 카메라 한 것에 담기도 어렵다. 마카오에는 세계 10대 타워인 마카오 타워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338

인간의 무모한 욕망은 ‘마천루의 저주’를 불러왔다. 1999년 도이체뱅크의 분석가인 앤드류 로렌스가 발표한 가설로 초고층 건물이 완공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속설이다. 호황기에 공사를 시작하지만 점차 칼리파에 다가가면 올려다보기도 힘들고, 카메라 한 것에 담기도 어렵다. 마카오에는 세계 10대 타워인 마카오 타워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338

마천루 경쟁



도 58층 규모인데 360도 조망이 가능한 원형 데크가 일품이다. 유리로 된 데크 바닥을 걷는 스카이라이프와 번지점프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력이다.

상하이를 찾는 관광객들도 동방명주에 올라 푸둥지구와 와이탄의 즐비한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것을 첫 손에 꼽는다. 초고층 빌딩과 타워는 한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과 함께 경제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탓에 도시 간 마천루 경쟁이 벌어진다. 마천루는 영어로 ‘하늘을 긁는 자’라는 의미의 ‘Sky scraper’다. 하늘에 도전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빗댄 말이다.

1931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되자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고, 1997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가 완공되자 동남아 외환위기가 터졌다. 두바이는 부르즈 칼리파 완공 두달 전인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현재 건설 중인 세계 10대 마천루 가운데 9개가 아시아에 있다는 소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의 1000m 짜리 킹덤타워를 필두로 우리나라의 롯데월드타워(691·556m)도 포함돼 있다.

이들 마천루들은 대부분 내년엔 완공된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설사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구조라 마천루의 저주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로동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